

정부 양보에도 수업 대신 거리로… 의대생 유급 현실화

의대생들 수업 불참률 70%
32개 의대 유급 시한 줄도래
일부 대학 불참자에 유급 통보
교육부 “학사 유연화 없다”

지난해부터 의료계 반발을 촉발했던 의대생 정원 확대가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이어지면서 대량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생들은 내년 의대 정원뿐 아니라 정부 의료개혁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21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학가에 따르면, 전날(20일)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결기대회’에 의대생 6000명 포함 2만5000명이 참석하며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각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환원한다고 밝혔지만,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를 정부가 수용해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은 한시적인 모집 인원에 불과하다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지난 20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결기대회에 참가한 의대생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동결 혹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이선우 의대·의전원학생협회장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정책 패키지는) 탁상행정만 하는 문과 관료들의 태만과 무능력을 절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우리는 1년 만에 대학에 휴학할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송고하고 어렵다던 이 길(의사)을 걸어야 할 이유를 모

두 빼앗겼다”고 토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의대생 후배들은 현재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없다’고 되뇌고 있다”라며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대학 7개 학년 평균 16일 기준 수업 참여율은 25.9%에 그쳤다. 서울·수도권 소

재 대학은 참여율이 평균 40%에 육박한 반면, 증원이 많이 된 지방 대학은 평균 22%에 그치고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이 확정된 이후 공식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언론간담회에서 “현재 온라인 수업에 40% 정도 참여하고 있고, 60%는 온라인 수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사이, 대학의 유급 결정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각 의대는 본과 3·4학년 중 각 실습 강기에 불참한 의대생들에게 지난주부터 유급 결정 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한 학기 수업 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이수하지 않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을 받게 된다. 유급이 누적되면 학적 말소, 즉 제적된다.

의대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고려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인하대, 전북대 등 13곳의 유급이 확정됐고, ▲16일 전남대 ▲18일 경희대, 순

천향대 ▲21일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을지대, 원광대, 인제대 ▲22일 한양대, 한림대 등에 이어 이달 말 동국대의 대를 마지막으로 전국 32개 의대의 유급 기한이 돌아온다. 다만 각 대학은 수업 불참 학생에 대해 당장은 유급 결정을 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시점인 학년 말에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 복귀 사항을 이달 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학사유연화도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구원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업 참여 추이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안내한 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각 대학 유급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원칙대로 (학사유연화 없이)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고 각 대학 총장·학장님들이 학기 말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는 22일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를 통해 약 20여명의 의대생을 만나, 수업 복귀 독려 및 의대교육정상화를 위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청계천 내일 개장

서울광장은 내달 4일부터 운영
장소 특성 살린 다양한 행사도

서울야외도서관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 올해 운영을 시작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서울야외도서관은 1만명 규모의 공공북클럽 ‘힙독클럽’ 출범, ‘서울팝업야외도서관’ 운영, 14개 자치구로 야외도서관 확산 등 한층 다채로워진 모습으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 ‘책읽는 맑은 냇가’는 23일, 서울광장 ‘책읽는 서울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내달 4일 개장한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은 운영 방식을 개선해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 세 곳 모두 주 3일(금·토·일) 운영한다.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초)로

나눠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여름밤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위주로 특별 운영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강서, 광진, 성북 등 14개 자치구에서도 공원, 도서관 앞 야외마당 등을 활용한 ‘자치구 야외도서관’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시는 도서, 돛자리, 북 라이트, 캠핑 의자 등으로 구성된 ‘북코닉 키트’ 1000여개를 제작해 서울시 내 초·중·고, 대학교, 문화시설 등에 대여하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을 시작한다.

올해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 세 곳은 각 장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MZ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도심 속 휴양지’ 콘셉트의 ‘광화문 책마당’은 북악산과 광화문을 배경으로 하는 ‘달빛낭만극장’과 ‘달빛낭만콘서트’를 정기 운영한다.

서울광장 ‘책읽는 서울광장’은 잔디밭을 무대로 ‘잔디 씨어터’, ‘잔디 버스킹’을 매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레고 코리아와 협력한 ‘레고 라이브러리’,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도서를 만나는 ‘여행도서관’, 아이도 부모님도 행복한 ‘창의놀이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세 곳의 야외도서관 모두 공간 콘셉트에 맞춰 디지털 기기를 잠시 끄고 독서에 오롯이 몰입하는 ‘책멍’ 프로그램을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1만2000여 권의 도서를 새롭게 선정해 비치하고, ‘책읽는 서울광장’에서는 광장의 시그니처 서가에 비치된 큐레이션 도서를 직접 배달해주는 ‘퀵(Quick) 서비스’와 미처 다 읽지 못한 책을 다음 방문에 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해주는 ‘킵(Keep)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현진 기자

서울 박물관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확대

시교육청·박물관 업무협약 체결
돌리뮤지엄 등 11개 박물관 참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회장 박미경) 및 산하 11개 박물관과 협력해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박물관 협의회 및 11개 박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참여 박물관은 고촌이종근기념관, 다문화박물관, 돌리뮤지엄, 북촌박물관, 떡볶이박물관, 유급와당박물관, 종이나라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춘원당 한의약박물관, 피규어뮤지엄W,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등 11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보통합 정책 특색

사업 중 하나인 지역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박물관협의회, 11개 박물관은 ▲산하 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박물관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박물관 프로그램 참여자 관리 ▲기타 지역사회 연계 박물관 프로그램 사업 운영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박물관협의회와 11개 박물관과의 협약을 통해 영유아 맞춤형 놀이·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발굴 및 보급 확대와 서울시 박물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서울사이버대, 강북스마트팜 교육 지원

강북구청과 자문 업무협약 체결
지속가능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15일 강북구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 센터 ‘강북스마트팜’의 개관식에 참석해 교육지원 및 자문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 임정선 평생교육원장, AI스마트팜학과 박찬수 학과장 및 이현진 교수가 참석해 개관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강북스마트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 기관은 강북구청과 서울사이버대를 포함해 ▲강북청년창업마루 ▲커피가능성 ▲롯데마트 삼양점 ▲파라스파라 서울 등 총 6곳이다.

참여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에서 ▲‘강북스마트팜’ 센터 및 재배단지 운영에 대한 상호 협력 ▲스마트팜 BI(북한산 농장) 활용 및 공동 홍보 ▲청년창업



서울사이버대 이은주 총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강북스마트팜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

활성화 및 상시 운영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이현진기자

동국대 경영대학 AACSB 국제경영교육 재인증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16일 경영대학(학장 정욱)이 세계적 권위의 경영교육 인증기관인 AACSB(Association to Advance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로부터 국제경영교육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AACSB는 전 세계 16,000개 이상의 경영대학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경영대학에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교육 인증기관이다. 국내에는 동국대 포함 18개 대학이 이 인증을 획득했다.

동국대 경영대학은 2012년 최초 인증

을 시작으로, 2020년과 2025년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재인증은 인증 주기가 기존 5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며, 동국대 경영대학은 교육 품질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동국대 경영대학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진행된 현장 방문 평가에서도 전방위적인 교육 혁신과 글로벌 교육 환경 강화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성과 관리체계(AoL)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현진 기자